

## 쓰레기 줄기 캠페인 경과 보고서

#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시대

김욱 낚시하는 시민연합 대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불 국가가 맞는가?

국민소득 1만 불을 넘어서던 시점에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레저의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는 견해가 다분했습니다. 1997년 온 나라가 IMF 위기에 빠졌던 그 해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소득을 통해 그 나라의 단기 사회상을 예측하는 방법은 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지만 이내 위기는 벗어났고 미래를 예측했던 말들은 신기하게도 들어맞으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레저 강국으로 변해 갔습니다. 우선 레저 종목이 매우 다양해졌고 참여인구나 시장규모 등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영위하고 있는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레저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필자가 보기에 양적 성장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글쎄요”라고 하고 싶네요. 덩치 큰 사춘기 청소년이 아동복을 입고 유아기 수준의 행동을 하는 모습에 비유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 낚시인의 가장 무서운 적은 패배주의

필자가 바라본 우리나라의 행정은 지나친 규제에 가득했습니다. 규제와 관련된 불만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많이 거론되지만 이런 분위기는 실상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 투성이의 대한민국 안에서 낚시라는 작은 분야는 어쩌면 규제 위주의 분위기에서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게 당연할 지도 모릅니다. 언론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객’이라는 말로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

을 만들어 놓고 전체 낚시인들을 환경파괴범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제작한 듯 보이지만 그 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결코 이성적이지 않은 혈통기로 결론이 지어짐을 매번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만든 기사의 의도는 온데 간데 없고 악플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은 잠깐의 불쾌함을 넘어서 자존감의 추락까지 느끼게 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당당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우선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유지합니다. 환경 파괴자라는 오명의 반복은 낚시인들을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똑같은 취미이고 레저 활동인데도 인구수나 역사가 훨씬 짧은 자전거 분야는 노골적인 우대 정책으로 이를 바라보는 낚시인들을 더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이상하게도 물가 포인트에는 자전거 도로가 그 옆을 스쳐가는 경우가 많았음).

우리를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이 사회에는 낚시인들을 좋게 보거나 돕겠다는 움직임 같은 것은 전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도울 존재는 우리 스스로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원망하며 못나 보이는 우리 자신을 한탄만 할 것이냐라고 자신에게 물어 봅니다. 결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늘 느껴온 것이지만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헤쳐 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낚시계의 전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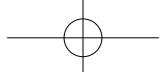
### 낚시 쓰레기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다

물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다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똥 딱은 휴지를 주을 때는 ‘낚시터에 화장실 좀 지어보자’는 생각, 버려진 낚시줄을 주을 때는 ‘야생동물이 말려서 다칠 텐데’하는 걱정, 조각조각 부서져 흐트러지는 스티로폼을 보면 ‘이게 다 우리 자손들 먹거리에 파고드는 미세플라스틱인데’하는 자손들 걱정, 정성을 다해 담아놓고 가져가지는 않은 비닐 봉지 안 쓰레기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하는 생각,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인 쓰레기 무덤을 보면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은 별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곤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가 있을 겁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굳이 자기 차로 옮기기 싫은 이유도 있겠고 물가에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겁니다. 여러



지난 6월 6일 장성호 쌍용교 쓰레기 줄기 캠페인을 마치고 단체 촬영한 참석자들. 장성군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쓰줍 캠페인은 낚시 이미지를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어적인 개념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봅니다. 캠페인의 강도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사회 일반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공세를 펼쳐야 우리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치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는 하나입니다. 낚시인구 850만명을 제외한 4천3백만 비낚시인들은 그 쓰레기만을 바라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쓰레기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그 옆에 서 있을 낚시인들을 쳐다보겠지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쓰레기는 단순히 쓰레기 그 자체가 아닌 겁니다. 낚시인들과 낚시계의 성장을 가로막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폭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임박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폭발의 임박을 알리는 경고의 징조를 친절하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낚시터 쓰레기 청소 운동 발전사

90년대에 낚시촌추에서 주도했던 '낚시터 청소의 날 행사'부터 요즘 펼쳐지고 있는 쓰줍(쓰레기 줍기) 캠페인까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체입니다. 과거에는 구전이나 전문지의 역할이 컸다면 요즘은 SNS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움직였던 대변혁의 이면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쓰줍 캠페인에서도 SNS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들이 사무실과 그 안에 집기와 전화, 직원이 필수였다면 현대의 시민운동단체는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사무실 그 자체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몸집을 최소화하니 유지해야 할 고정비용 걱정

이 없고 목적하는 일 그 자체에 집중이 가능한 겁니다. 재정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다보니 후원기업이나 정부, 지자체 눈치를 볼 이유도 줄어든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실컷 저지할 수 있는 슬림한 몸집은 역동적 에너지로 상징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특기할 만한 변화 하나는 작년 여름 치열한 낚금지 투쟁의 대척점에 있던 지자체 한 곳(장성군)과 손을 잡고 쓰줍 캠페인을 벌인 일입니다. 기세등등하며 서로의 약점을 물고 뜯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뽀뽀하게도(?) 지원을 청했더니 흔쾌히 수락해주었습니다. 비록 내용은 종량제 봉투 50장과 목장갑 두 뭉치가 다였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보다 가볍지 않음을 독자들도 느끼실 겁니다.

#### 캠페인의 방향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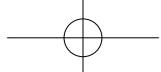
지금까지 쓰줍 캠페인은 낚시 이미지를 호의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어적인 개념이라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봅니다. 캠페인의 강도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사회 일반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공세를 펼쳐야 우리의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우리 쪽에서 먼저 이끌어내야 하고 낚금지 행정이 펼쳐지기 전부터 각 지자체내 해당 부서들과 긴밀한 내통(?)이 필요한 겁니다.

얼마 전 나주호에서는 나주호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나주지소 측이 주



(좌)장성호 쌍웅교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있는 낚시인들. (우)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소가 지난 5월 15일 주최한 나주호 낚금지 위한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소 측은 낚시 쓰레기가 나주호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낚시객 유치를 바라는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손맛 즐길 때는 주인이었다가도 쓰레기 치울 때는 냉정히 외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안 버리면 됐지’라고 말하면 굳이 많은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주인의식을  
기대하겠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지도 의문입니다.**

최한 낚시금지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필자도 그 자리에 참석해 낚시인 대표를 자처하고 할 말을 하고 왔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결과는 농어촌공사 측의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준비도 부실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결정타였던 것은 다도면 지역민들의 울분에 찬 항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를 다소간 감수하더라도 외지로부터 관광객 즉 낚시인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주장이었고 이 점에 대해 참석했던 나주시 의원들과 시청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결론이 맺어진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나주시와 장성군의 환경 담당 직원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지자체를 향해 꾸준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효력을 발휘한 셈입니다. 이제와 고백하는 것이지만 장성호 낚금 투쟁 이후에도 필자는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직원들과 종종 전화통화로나마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교환하던 차였기에 우연이긴 하지만 소통의 노력이 헛되지않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낚시하는 시민연합은 지자체, 정부, 민간단체, 기업, 개인 등등 같은 방향 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연대하려고 합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클린낚시캠페인이 주최하고 있는 낚준원정대 공동행사를 통해 버려진 낚시바늘과 낚시줄의 위험성을 재인식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캠핑객들의 쓰레기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 이 문제를 캠퍼들만의 문제로 보겠냐는 우려의 생각이 들

니다. 야영금지니 낚시금지니 하는 행정용어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곧 어마어마한 사회적 제제가 몰아닥칠 것이고 과연 그 폭풍이 캠핑 쪽에만 불겠느냐는 우려가 듭니다. 연대의 필요성은 이런 우려에서 출발합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처럼 이웃의 괴로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낚시터를 아껴야 온전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쓰줍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 낚시터의 주인이 누구냐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낚시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아껴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손맛 즐길 때는 주인이었다가도 쓰레기 치울 때는 냉정히 외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안 버리면 됐지’라고 말하면 굳이 많은 말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주인의식을 기대하겠으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고자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 지도 의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쓰줍 캠페인의 방향은 안 버리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우기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



(좌) 지난 5월 31일 아산호에서 진행된 합동 쓰레기 줍기 캠페인. 클린낚시캠페인, 동물을위한행동, 롯데월드이쿠아리움, 낚시하는 시민연합이 함께했다.  
(우) 아산호 합동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마치고 함께한 단체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